

유럽슈퍼리그, 창설 이틀 만에 '균열'

맨유·첼시·토트넘 등
EPL '빅6' 전원 탈퇴

UEFA 회장 "그들의 결성
능력 의심한 적 없어" 환영

유럽슈퍼리그(ESL)가 창설 이틀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6개 구단이 전원 탈퇴를 선언하며 출범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영국 BBC 등 복수의 현지매체는 21일(한국시간) EPL 빅6로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첼시, 리버풀, 토트넘 아스널이 ESL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먼저 맨시티가 공식 성명을 통해 "슈퍼리그 창단 멤버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토트넘과 아스널, 맨유, 리버풀도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날 브라이튼과 경기(0-0 무)를 치른 첼시도 마지막으로 ESL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첼시의 홈구장인 스탬퍼드 브리지 밖에선 팬들의 함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이 이뤄졌다.

웹 과라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ESL이 스포츠의 무결성과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도 ESL 참가를 결정한 구단주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ESL 창설로 불안과 분노를 야기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맨유의 에드 우드워드 부회장은 ESL 참가를 결정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PL 빅6 팀들은 ESL 창립 멤버였다. 이들은 지난 19일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FC바르셀로나(이상 스페인),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밀란(이상 이탈리아) 등과 12개 구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 경기장 밖에서 첼시 팬들이 첼시의 유럽 슈퍼리그 참가 계획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축구 팬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슈퍼리그 참가 의사를 밝혔던 영국 6개 구단이 참가를 철회하고 FC 바르셀로나도 철회 의사를 전하면서 슈퍼리그 사무국은 리그 출범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출범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단으로 이뤄진 조직을 구성하고 ESL 출범을 선언했다.

그러나 축구계와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EPL 6개 구단이 먼저 백기를 들고 탈퇴 의사를 밝혔다.

ESL 출범 움직임은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EPL 6개 구단이 가담하지 않으면 출범은 불가능하다.

ESL 창설 발표 후 국제축구연맹(IFA)과 유럽축구연맹(UEFA) 등 국제기구와 각국 축구 협회 등은 슈퍼리그 참가 선수에 대한 월드컵,

유로대회 등 국제대회 참가 금지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영국 정부도 EPL 빅6의 ESL 참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SL은 축구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무엇 이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PL 6개 구단의 ESL 철회 소식 이후 일렉산드로 세페린 UEFA 회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다"며 환영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ESL 참가 포기를 환영한다. 확실한 목소리를 내준 팬들에게 고맙다. 축구가 팬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EPL 빅6의 탈퇴로 출범 위기에 놓인 ESL은 성명을 통해 재검토 의사를 전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재편하기 위해 다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유럽축구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대회를 제시했다. EPL 구단들이 압박을 못 이겨 탈퇴했지만 우리의 제안은 유럽의 법과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시스

신기록 보유자 꺾다

전국대학대학육상대회서

원광대 홍승연, 해머던지기 1위

한 대학 신입생이 쟁쟁한 선배들을 물리치고 전국대학에서 정상에 올랐다.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75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원광대학교 홍승연 선수(1년)가 해머던지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원광대 새내기 학생으로 대회에 출전한 홍승연은 이 대회에서 51.37m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홍 승수는 해머던지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를 비롯해 경쟁력 있는 선수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리공고 재학 시절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등 실력을 뽐냈던 홍승연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전북 육상의 미래를 밝게 했다.

원광대 김권식 감독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학교에 감사를 드린다"며 "우수선수를 육성·발굴하고 육상팀 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홍승연 선수 (사진=전북도체육회 제공)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해주세요

초등생 체육활동 '더 안전하게 재미있게'

문체부, 5G기반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년까지 전국 361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통합 온라인 체제(플랫폼) 형태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지원한다. 통합 온라인 체제에서는 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전국 학교 간 실시간 대항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그동안 코

나9 상황으로 학교 간 대면 교류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통해 비대면 스포츠 교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용·복합 스포츠 콘텐츠 123종을 제공해 더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매

년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기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한 학교에 통합 온라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등학교 100개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3~4월에 희망 학교를 1차로 공모했으며, 5~6월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비대면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용·복합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해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의 10개교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20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높은 위상과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높은 품질의 고창 농수축산품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고창 학원관광농장

